

‘목포 일주일 살기’ 참여 열기 후끈

8~9월 1~3회차 참여 30개 팀

목포 콘텐츠 매일 SNS에 게재

4회차 지원자 늘어 40개팀 선정

목포시와 목포문화재단이 추진 중인 ‘낭만과 설렘의 시작! 목포 일주일 살기’가 참여 열기로 뜨겁다.

목포 일주일 살기는 ‘한 달 여행하기’, ‘일주일 살아보기’와 같은 여행트렌드에 발맞춰 관광객이 낭만향구 목포의 진면목을 경험하고 감상을 SNS에 공유·홍보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목포를 구석구석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주제를 설정해 4회차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30개 팀이 참여해 8~9월 동안 진행된 1~3회차가 종료된 가운데 참여자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체험한 목포 관련 콘텐츠를 매일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목포 체류기간 중 인스타그램에 391개, 블로그에 44개, 페이스북에 24개, 유튜브에 12개 등을 각각 업로드했으며,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10월에 진행될 4회차 ‘문학에 스며들다’는 1~3회차 참여자들의 입소문에 힘입어 전보다 높은 지원율을 보이며 50개팀이 지원했다.



‘낭만과 설렘의 시작! 목포 일주일 살기’ 참가자들이 유달산을 찾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보다 많은 사람이 목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기존 30개팀에서 10개팀을 추가 선정해 총 40개팀으로 4회차를 진행한다.

4회차는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2021 목포문학박람회’를 비롯해 목포가을페스티벌, 목포해상W쇼 등과 같은 기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 목포

가을의 정취를 더욱 풍성하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4회차는 1~3회차의 아쉬운 점을 보완해 더욱 풍성하게 준비했다”며 “한국근대문학 거장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목포에서 문화와 관광을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진도군, 치매 친화적 환경·안전망 구축

50여 가구 편리한 문손잡이 교체

진도군이 치매 환자와 더불어 사는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과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진도군은 치매안심마을을 대상으로 최근 치매 친화 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문손잡이 등의 교체를 완료했다.

의신면 칠전마을과 고군면 지수마을 50여 가구에 대해 봉사단체 칠우회와 함께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에게 편리한 문손잡이 등을 교체했다.

신체적,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이 노후

화로 인한 고장과 열쇠 분실 등의 불편으로 작동이 어려운 원형 문손잡이를 레버 형식의 문손잡이로 교체해 호평을 받았다.

지난 2018년 12월 설립된 진도군 치매안심센터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치매선별검사가 무료로 가능하다.

특히 치매 어르신을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제공 서비스,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발급 서비스, 치매가족과 보호자를 위한 지원 사업, 치매예방 캠페인과 인식개선 교육,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진도=박형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추석 선물 ‘완도 전복’ 인기...47% 증가

면역력이 뛰어난 ‘완도 전복’이 지난 추석 명절 선물로 인기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에 따르면 추석명절 직전인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전복 판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한 전복 발송 건수가 21만3891건으로 전년 대비 47.7% 증가했다.

완도군 농수특산물 중계 소평물인 ‘완도군이슈’의 판매량도 지난해 추석 기간 대비 2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북의 경우 산지 출하가격이 전년 추석 기간 대비 8~14% 가격이 상승했다. 올해 추석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대북 크기의 전복이 많이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농수축산물 선물 검색어로 ‘전복’이 한동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 압해도 갯벌을 찾은 멸종위기종 저어새 무리.

신안 압해도 갯벌서 멸종위기종 저어새 관찰

저어새 5개체·노랑부리 1개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신안갯벌의 생물자원 모니터링 중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가 관찰됐다.

압해도 갯벌에서 확인된 개체는 저어새 5개체와 노랑부리저어새 1개체이다. 그 중 다리(경부)에 가락지를 부착한 저어새 1개체도 관찰됐다. 유색 가락지는 보통 개체식별과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부착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개체는 Y 13이 적힌 빨간 유색가락지를 부착하고 있었다.

한국물새네트워크에 문의한 결과 지난 2020년 강화도 각시암에서 태어난 2년생인 개체로 확인됐다.

저어새 무리는 지난 7일 처음 압해도 갯벌에서 확인됐다. 월동지로 이동하는 중 체력 보충을 위한 먹이활동과 휴식을 위해 압해도 갯벌을 찾은 것

으로 판단된다. 20일이 지난 현재 압해도 갯벌과 내륙습지를 오가며 활발하게 먹이활동을 하고 있으며, 먹이가 풍부해 떠나지 않고 장기간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자연유산이자 생물권보전지역,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서식지로 지정된 압해도 갯벌은 1만여 개체의 다양한 도요·물떼새들이 번식과 월동을 위해 대규모로 찾아오는 지역으로 종다양성이 높고 보전 가치와 생태계 우수성이 매우 뛰어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신안갯벌은 국제적 보호종을 포함한 다양한 철새들의 휴식지이다”며 “세계인의 소중한 유산인 만큼 신안갯벌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자원 보전과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 그리고 국민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 고천암호 용수, ‘상습 가뭄’ 북일지구에 공급

2025년까지 353억원 투입 연결

상습 가뭄지구인 해남군 북일면 일대에 황산면 고천암호 용수가 공급된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가뭄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북일면은 해마다 200ha의 농경지에 가뭄 피해가 발생한다.

두륜산 우측에 있고 평야 지대로 이루어진 북일면은 저수지를 신설할만한 부지가 없어 그동안 소규모 저수지와 관정만을 사용해 농업용수를 공급

해왔다. 해남군은 여유 수량이 풍부한 고천암호의 물을 관로를 통해 북일면으로 공급하는 수계연결사업에 나섰다.

명현관 해남군수 등이 여러 차례 중앙부처를 찾아 지속 건의한 결과 지난해 353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되면서 속원을 해결하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양수장과 17km의 송수관을 매설해 북일면 운전저수지와 신월저수지, 만수저수지 등 3개 저수지에 용수를 공급한다. /해남=박희성 기자 dia@kwangju.co.kr

군은 올해 중 기본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 착공할 계획이다.

고천암호 농업용수가 북일지역에 공급되면 북일면 일원 942ha 농경지 가뭄이 완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북일지구 가뭄 해소를 위한 수계연결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 만큼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성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 예술인 50만원·공연업체 100만원 긴급지원

각각 10월15·8일까지 접수

목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는 50만원, 공연 관련업체는 100만원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술인의 경우 올해 6월15일부터 목포에 주소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자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거나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내에 한정한다.

지원신청서와 예술활동증명서, 건강보험 관련

서류, 주민등록초본 등은 오는 10월15일까지 목포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예술활동증명서는 문학, 사진,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의 활동내역 증빙을 통해 한국 예술인복지재단이 심의를 통해 발급한다. 증명서는 전남문화재단이 업무를 대행해 신청 및 발급을 돕고 있다.

100만원씩 지급되는 공연관련 업체는 지난해 말까지 개업한 업체 중 신청일 기준 사업장 소재

지가 목포시에 위치한 업체로,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소기업이며 개업시기별 기준 매출액 대비 매출규모가 감소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증빙서류(주업종 코드확인서), 월별 매출액 증빙자료 등으로 오는 10월8일까지 문화예술과로 신청하면 된다.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업체, 행정명령 위반사업자는 지원 제외대상이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